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참으로 버리셨을까요?

Did God Really Forsake Jesus Christ on the Cross?

마태복음 27:46

제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은 소리가 오래전부터 지금 까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혼동과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죄와 상대할수 없기 때문에 그가 그의 아들을 버리셨다고 가르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밑에 따르는 구절을 인용하여 그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버릴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2:27

“지금 내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6:32

“보라 너희가(제자들) 다 각각 제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5:19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 (외동아들)를, 더구나 이때를 위하여 그의 평생에 훈련시켜 가지고 그를 버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적성에 맞을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이 예수 그리스도 이었고, 이세상 모든 인간의 구원을 그의 어깨에 짊어지셨고, 아들이 오직 아버지만을 또박 또박 믿음으로 끝까지 실행함으로 비로서 십자가가 아버지의 사연의 뜻을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의미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버리셨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성경과 반박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로 온 군인과 싸우려고 칼을 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twelve legions-72천)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마태복음 26:53)라고 하셨습니다. 이말씀에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사이가 매우 가깝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청하면 지체없이 들어 주신다고 장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27:46절에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고 있는가 와, 왜, 그렇게 말씀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필요 하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아람어 뜻을 세밀히 조사 안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엘리 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 이고 라마 라는 뜻은 “어찌하여” 이고 그뿌리말 사박다니 는 보통 “버리셨나이까” 라고 번역했지만 또한 “kept-간직 했다” 혹은 “reserved-예약 했다” 로도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절 뜻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사에서는 이구절이 예수님께서 시편 22장 1절을 읊으신 것으로 단정하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절망에 몰부렸음이 아니라 오히려 골고다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응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며, 또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증한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구절을 다시읽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실 것을 구약 에 미리 예언되었다는것을 귀뜸해주는 구절 들만 감괄해 봅시다:

요한복음 19:24b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마태복음 27:41-43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회동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 올찌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찌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자기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만약 여러분이 원하시면 손수 성경책을 펴서 시편 22장을 읽어 보세요.

골고다에서 일어난 관경을 상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숨겨두실 때까지 40 시간동안 채찍으로 맞고 고문 당하고 그리고 피 투성이가 된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의 곁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와 친한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중에 예수님께서 병고쳐주신자 들도 많이 있다느것은 물론 으스스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은 그를 태산같이 믿었으며 적어도 그가 약속의 메시아라고 희망을 걸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흉칙한 십자가를 눈앞에 놓고 볼때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강렬히 공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자기들의 영웅이 이렇게 된 것을 볼때에 그동안 예수님께서 내, 내, 자기가 누구라고 가르치신 것이 혹시 사실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염려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께서 평소예 늘 하시는 식으로 그들의 마음 심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그때 사람들이 가장 낮익게 알고있는 성경 대목을 골라서 하신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경과 똑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실때까지 성경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자기를 믿은 자 들을 위로해 주신 동시에 또한 믿지 않는자도 위로해 주셨고 그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도 까지도 함께 위한 것이었으며 한번 더 자기가 말한 그대로 자기가-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수 있게끔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시편 23장을 들어본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한 부분 이

든지 혹은 전부를 외워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시편 23장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들 중의 한 대목 이라고 동감 하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십 삼 세기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기 28년 에는 어떻구요? 시편은 이스라엘에게 기록 한것인데 하물며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시편 23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왜 시편 79장, 예를 들어서 혹은 32장, 혹은 57장은 그렇지 않는가 하고 으아스러워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점에 대한 이유의 답변은, 시편 22장, 23장, 24장 이 “Messianic Trilogy-구세주 신상 부작”이라고 부르는데 매우 열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대목을 능통하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시편 22장을 읽을 때 이것을 기억하고 읽으세요.

구약 서에 기록된 어떤 예언들이 종종 그 당시에 조금 응하고 또 미래에도 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바로 이 대목 곧 시편 22장 을 미래에 응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편 22장 맨 첫 구절을 읊으시고 맨 마지막 구절을 읊으셨는데 그 구절을 함당하게 번역 하려면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옛날 노래 들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첫마디만 들어도 전체 노래 가사가 다 똑 살아 나는 경험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노래를 따라서 같이 불러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계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했고, 가장 잘알려 졌고, 구약 성경 에서 가장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대목, 곧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직접 일어나고 있는 광경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 대목을 골라서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읊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읽을 이 구절들이 그들 마음의 심장을 꿰뚫었을 것이고 그들의 기억에 살아나 틀림 없이 그들의 귀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시편 22:1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 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아니하시나이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하는 말이 (rhetorical question-미사 어구)라고 하는 데 이 말을 좀 쉽게 말하자면 “이런수가있느냐?”라는 곧 “그런수가 없다”는 대답을 알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18절에서 이 시편 제목이 기본적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둘레에 모인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흉칙한 광경이었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는 것 처럼 보인 것입니다.

시편 22:2-5

(2)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4)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5)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 시편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

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보세요, 위의 구절이 거기에 모인 자들에게 그들의 열조의 신앙을 생각나게 해 줌으로써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그들의 메시아도 견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시편 22:6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뱀장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기서 벌레라는 말은 참 흥미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로 tola-톨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벌레를 말하는게 아니고 이 벌레는 피 비린내나는 심홍색 혹은 진홍색의 물감이 들어 있는 벌레를 말합니다. 이것을 왜 여기다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벌레가 진홍색 물감 으로 잘 알려졌으므로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피두성이가 된 것을 아주 강력하게 형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22:7절과 8절

(7)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견지실걸 하나이다.

윗 구절과 같은 것을 전에 마태복음 27:41-43절에서 읽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읽어 보았습니다. 이 예언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실행되고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자들에게 이 광경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 하신 것입니다.

시편 22:9-11

(9)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10) 내가 날때부터 주께 맡긴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11) 나를 멀리하지 마음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자 없나이다.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하신 말씀은?

시편 22:12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들렀으며

바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이말에 대하여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산은 이스라엘의 최고로 좋고 강한 황소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최고로 높고 강한” 것 들을 가리켜 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이 로마인들을 분발시켰고, 감언으로 꼬이고, 조작하여 십자가에 못질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습니다.

시편 22:13-15

(13) 나에게 그들의 입을 벌림이 썩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14) 나는 물같이 쏟아졌 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 내 힘이 말라 질 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몸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 말을 비유적으로 사용하자면 사람이 죽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네” -우리도 이와같은 말을 씁니다: “온몸의 뼈가 다 썩는다” 라고 해서 후 그 중에 많은 뼈가 아프겠지만 온몸의 216 개가 다 아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을 바로 figure of speech-형상을 그리는 말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를 생각해 보자면

그의 뼈가 많이 어그러졌을 것이며 물론 그의 기분에 모든 뼈가 다 어그러진 느낌을 받았을 것은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 (heart-심장), 이것이야말로 몸에 가장 소중한 내장인데 바로 그것이 “춌떨같아서” 녹았다고 했습니다. “질그릇”은 그릇을 만들어 햇빛에다 말린 그릇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힘이 완전히 없어졌음을 형용합니다. 그의 허가 잇붙에 붙었나이다 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때 “내 목이 마르다”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해 보세요.

시편 22:16-18

(16)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17)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 내 걸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로마인들이 죄인을 십자가에 못박을 때 군병들로 십자가에 둘러 세워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개” 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것이 또다른 figure of speech-형용해 주는 말인데 이 뜻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이 제찍으로 맞아서 살이 벗겨졌기 때문에 뼈들이 보인다는 것을 형용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침뱉고 비웃었고, 외기향양하게 그를 주목했습니다. “내 걸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말씀은 나중에 골고다에서 일어난 일로 웅한 예언인데 이 이상 더 또렷 또렷 하게 표현하여 웅한 예언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22장 19절서부터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으로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시편 22:19-21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21) 나를 사자 힘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메시아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를 구원 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구원했을까요? 십자가에서 끌어 내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 하신대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세요.

시편 22:22절과 23절

(22)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3)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찌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찌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찌어다.

만약에 그가 죽음으로 끝났으면 메시아께서 장래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단지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신 것을 지켜서 그를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깨달을수 있습니다!

시편22:24

그는 곤고한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리고 이 베타데 없이 광대한 이 대목 시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있는 이 사람, 예수님의 죽음

과 부활에 대하여 초상화를 뚜렷하게 그려서 마지막에는 점점 메시아가 찬송의 소리로 커지고 미래에 약속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시편 22:25-31

(25)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정의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26) 겸손한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찌어다 (27)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아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28) 나라는 여호와와 것이요 여호와와는 열방의 주재심이로다 (29) 세상의 모든 증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30)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31)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함이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대목 31절 마지막 끝나는 말이 약간 다르게 번역했어야 합니다. 영어성경 킹제임스 번역에는 "it" 아라는 말을 더한 말이라고 퀘놀람체 글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사 "be"를 "it" 으로 번역해서 마지막 말이 "for it is finished-다 이루어졌다." 라고 끝나는 것이 맞게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능통하게 다 알고 제셨으며 그의 생명의 엄청난 고통스런 마지막 순간에도 정신을 가다듬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는 자 까지 포함해서 한번 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언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대목의 맨 첫 구절을 읊으시고 마지막 구절의 마지막 대목을 읊으신 것입니다. 그의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한 메시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자기를 가리켜 말한것이라고 이스라엘로 기억나게 하시고 장래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수 있게끔 하시려고 시편 22장 맨 첫 구절과 맨 마지막 구절의 마지막 대목을 읊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후물하신 분인가요! 얼마나 훌륭하신 구원자 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께서는 는 삼일 낮 삼일 밤을 기다렸다가 예수를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지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부활의 강력한 능력안에서 행하여 죽어가는 세상에 그의 생명의 능력을 선포 합시다. 아멘.

Article by: John Schoenheit

번역: 김영순

편집: 김정숙